

후예와 항아

글 | 이흠

그림 | 동동

글 | 이흠 (李鑫)

그림 | 동동 (Dong Dong - 咚東)

편집 | 김은파, 이수인

편집 디자인 | 이해명

베트남어 번역 | 황티장

중국어 번역 | Wenting Du, 교정: 이흠

영어 번역 | Jennifer An

태국어 번역 | 김주영, 감수: 분타리카 너이씨 (บุญทริกา น้อยศรี), 교정: 채혜민

목소리 | 한국어: 황창영, 베트남어: 레 쉰언 비, 중국어: 곡효여,

영어: 제인 페인터, 태국어: 페와 떼차마하몽콘





아주 먼 옛날, 옥황상제는 동쪽 바다에 살고 있는 여신 희화를 사랑하게 되었어요. 옥황상제와 희화는 열 명의 아들을 낳았는데, 이 아들들은 모두 태양이었어요. 희화는 매일 아들 한 명을 데리고 하늘에 올라갔다가 저녁에는 다시 바다로 내려와 쉬었어요. 그래서 인간 세상에는 낮과 밤이 있게 되었어요.



그로부터 천 년 후, 열 명의 아들은 모두 크게 자랐고 어머니의 말을 잘 듣지 않았어요. 그래서 하루에 한 명씩 하늘에 올라가는 대신, 열 명이 모두 함께 하늘로 놀러 갔어요. 하늘에 열 개의 태양이 동시에 나타나자 사람들은 극심한 더위에 시달렸고 농작물은 다 말라 죽었어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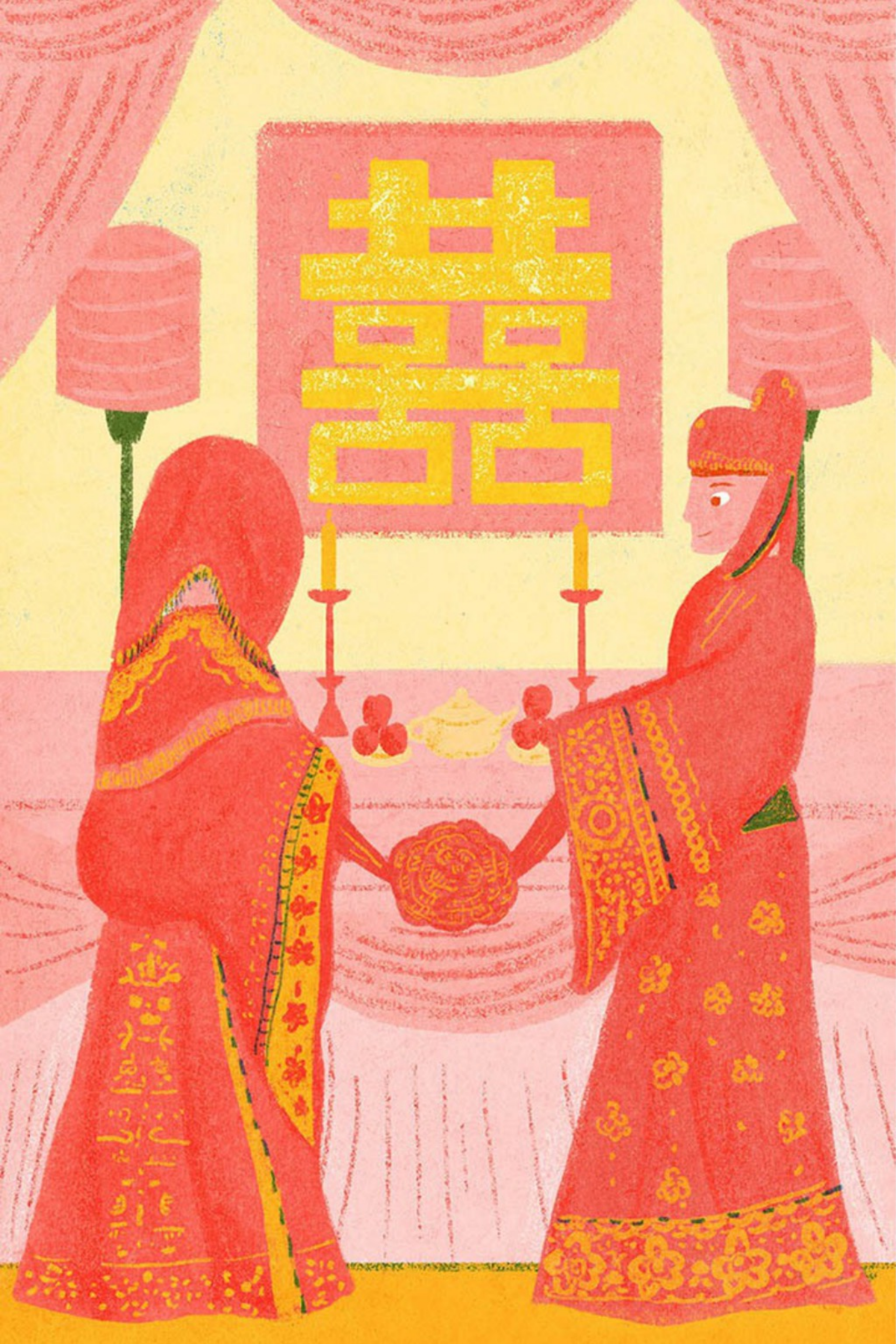


곤륜산에 사는 여신 서왕모는 이를 알고 몹시 화가 나서 열 개의 태양을 없애야 한다고 옥황상제에게 말했어요. 이때 인간 세상의 요 임금이 활 쏘는 재주가 아주 놀라운 후예라는 사람을 추천했어요. 옥황상제는 후예에게 신비한 활과 열 개의 화살을 주면서 태양을 쏘라고 했어요.



후예는 곤륜산 꼭대기에 올라가 활로
아홉 개의 태양을 쏘아 떨어뜨렸어요.
인간 세상에 태양 하나는 있어야 한다고
생각한 후예는 마지막 태양에게
말했어요.

“너 하나는 살려주겠다. 대신
지금부터는 매일 제시간에 오르내려야
하고, 도망가거나 게으름을 피워서 안
된다. 이를 어긴다면 너도 쏘아서 없애
버릴 것이다.”



후예의 말을 듣고 겁을 먹은 열 번째 태양은 그렇게 하겠다고 했어요. 후예 덕분에 인간 세상이 다시 평화를 되찾았기 때문에 사람들은 그를 존경했어요. 활 쏘는 법을 배우려고 제자들도 많이 찾아왔지요. 후예는 향아라는 아름다운 여인을 부인으로 맞아 행복한 나날을 보냈어요.



그러던 어느 날, 후예는 곤륜산에
갔다가 서왕모를 만나게 되었어요.
서왕모는 후예가 태양 아홉 개를 쏘아
떨어뜨린 사람이라는 것을 알고 그에게
귀한 선물을 주었어요. 먹으면 하늘의
신선이 되어 영원히 살 수 있는
불사약이었어요.



집으로 돌아온 후예는 항아에게 불사약 이야기를 해 주었어요. 두 사람은 당장 인간 세상을 떠나고 싶지 않았기 때문에 준비가 되었을 때 함께 신선이 되기로 했어요. 약은 집 안 깊숙이 숨겨두었지요. 그런데 후예의 제자인 봉몽이 두 사람의 이야기를 엿듣고 있었어요.



얼마 후 후예는 제자들과 멀리 사냥을 나갔어요. 봉몽은 함께 사냥을 가지 않고 남아 있다가 슬그머니 후예의 집으로 갔어요. 그리고는 불사약을 내놓지 않으면 죽이겠다고 향아를 협박했어요.



항아는 불사약을 지키고 싶었지만
힘으로는 봉뭉을 이길 수가 없었어요.
‘봉뭉처럼 나쁜 사람이 신선이 되는
것은 막아야 해!’

항아는 약을 삼켜 버렸어요. 그러자
몸이 가벼워지더니 공중으로
떠올랐어요. 하늘로 올라가게 된 항아는
남편과 멀리 떨어지기 싫어서 땅과 제일
가까운 달의 신선이 되었어요.



사냥에서 돌아온 후예는 항아에게
일어난 일을 듣고 머리 끝까지 화가
나서 봉뚱을 찾았지만 이미 도망간
다음이었어요. 후예는 분노와 슬픔을
느끼면서 하늘을 향해 울부짖었어요.
사랑하는 부인을 다시는 만날 수 없다는
것을 믿을 수가 없었어요.



후예가 올라다본 하늘에는 밝고 둥근 달이 떠 있었어요. 달 속의 그림자는 희미했지만 후예는 그것이 항아라는 것을 알 수 있었어요. 후예는 항아가 좋아하던 과자와 과일을 차려 놓고 달을 향해 제사를 지내며 그리움을 달랬어요.



그 후로 다른 사람들도 둥근 과자와
둥근 과일을 차려 놓고 향아에게 제사를
지내면서 복을 빌었어요. 음력 8월 15일,
중국의 중추절에 달을 향해 제사를
지내는 풍습은 이때부터 시작되었다고
해요.

“후예와 항아” is licensed under CC BY 4.0 by Enuma, Inc. & The Foundation SeeArt for Book Culture. To view a copy of this license, visit <http://creativecommons.org/licenses/by/4.0/>.

© 2019 by Enuma, Inc. & The Foundation SeeArt for Book Culture